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노후설계 지원서비스의 방향

-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후를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한 단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노후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적·물적 서비스인 노후설계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 그러나 국가가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민간의 효과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조사개요]

□ 분석자료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2010) 원자료

- 조사일시 : 2010년 11~12월
- 조사대상 : 예비 노인 세대인 45~64세 전국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분석대상 : 조사대상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1955~1963년 출생자 523명

1.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분석

가. 베이비붐 세대의 영역별 노후준비도

□ 영역별 노후준비도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45~64세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건강 영역의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조사대상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베이비붐 세대를 전기 베이비부머와 후기 베이비부머로 구분해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노후준비도가 더 높게 나타남. 반면 전기 베이비붐 세대는 여가에 대한 준비 정도가 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종합해 보면 1955~1959년 출생집단인 전기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1960~1963년 출생집단인 후기 베이비붐 세대가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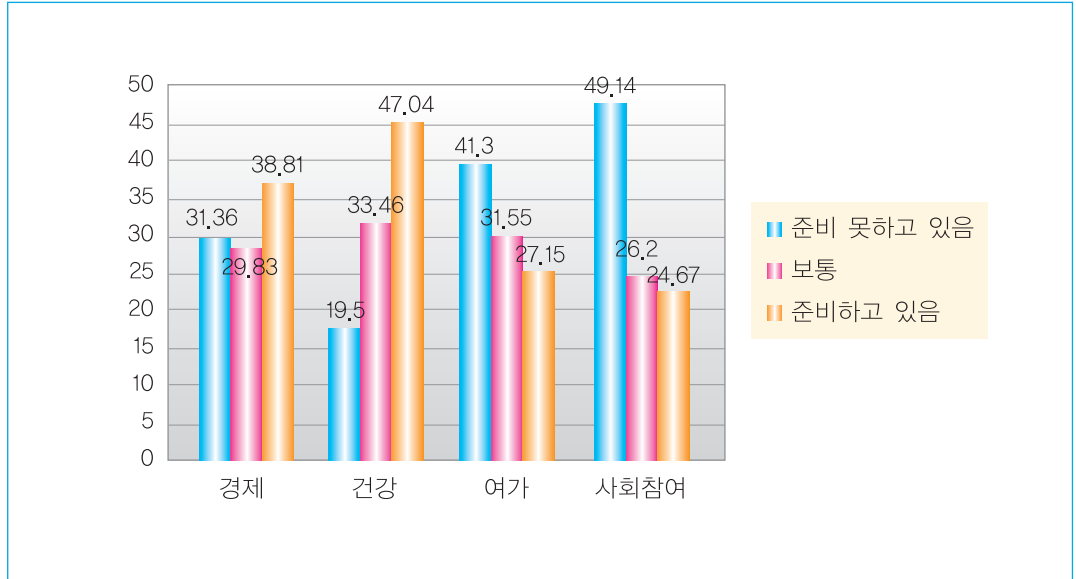
〈표 1〉 출생연도·성별 노후준비도

(단위: %)

전체		출생연도	
		1955-1959년생	1960-1963년생
경제			
충분히 하고 있다	5.2	5.6	4.5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3.7	31.7	36.4
보통이다	29.8	29.4	30.5
거의 못하고 있다	26.4	28.7	23.2
아예 못하고 있다	5.0	4.6	5.5
건강			
충분히 하고 있다	8.0	7.6	8.6
어느 정도 하고 있다	39.0	35.3	44.1
보통이다	33.5	35.0	31.4
거의 못하고 있다	17.0	19.5	13.6
아예 못하고 있다	2.5	2.6	2.3
여가			
충분히 하고 있다	4.0	3.6	4.5
어느 정도 하고 있다	23.1	24.1	21.8
보통이다	31.5	28.1	36.4
거의 못하고 있다	36.1	39.3	31.8
아예 못하고 있다	5.2	5.0	5.5
사회참여(자원봉사, 일자리 등)			
충분히 하고 있다	5.4	5.0	5.9
어느 정도 하고 있다	19.3	18.8	20.0
보통이다	26.2	24.4	28.6
거의 못하고 있다	41.7	45.2	36.8
아예 못하고 있다	7.5	6.6	8.6
계	100.0	100.0	100.0
(명)	(523)	(303)	(220)

[그림 1] 베이비붐 세대의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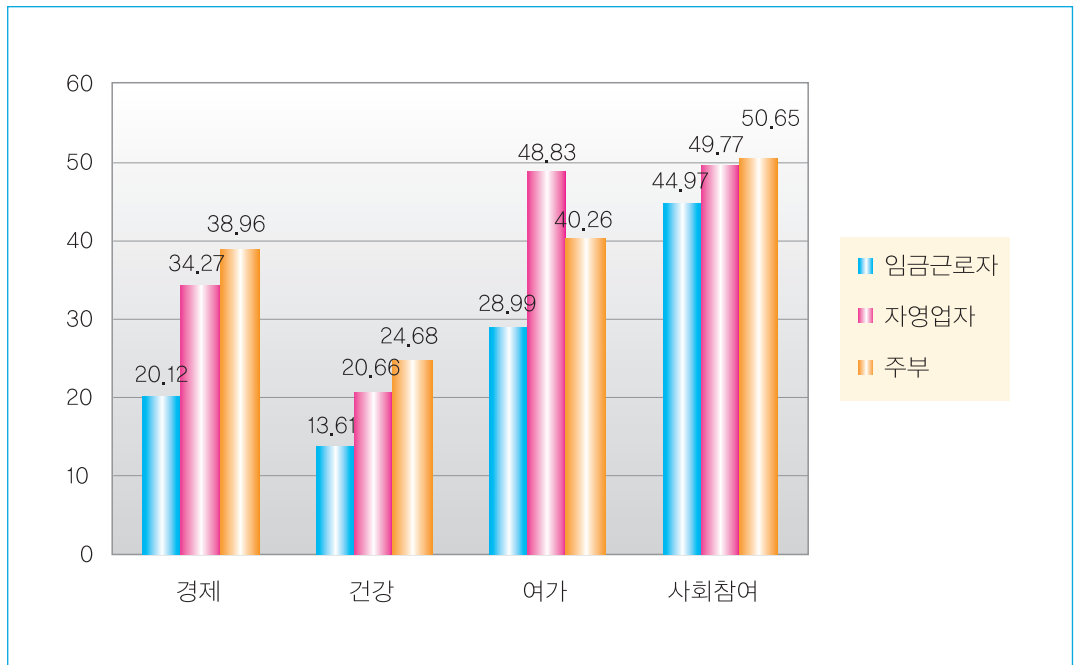


□ 노후설계의 영역별 준비도를 비교해 보면 건강에 대한 준비도가 높은 반면 여가 및 사회참여의 경우 각각 41.3%, 49.14%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집단 분석

[그림 2] 노후설계 영역별 노후준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직종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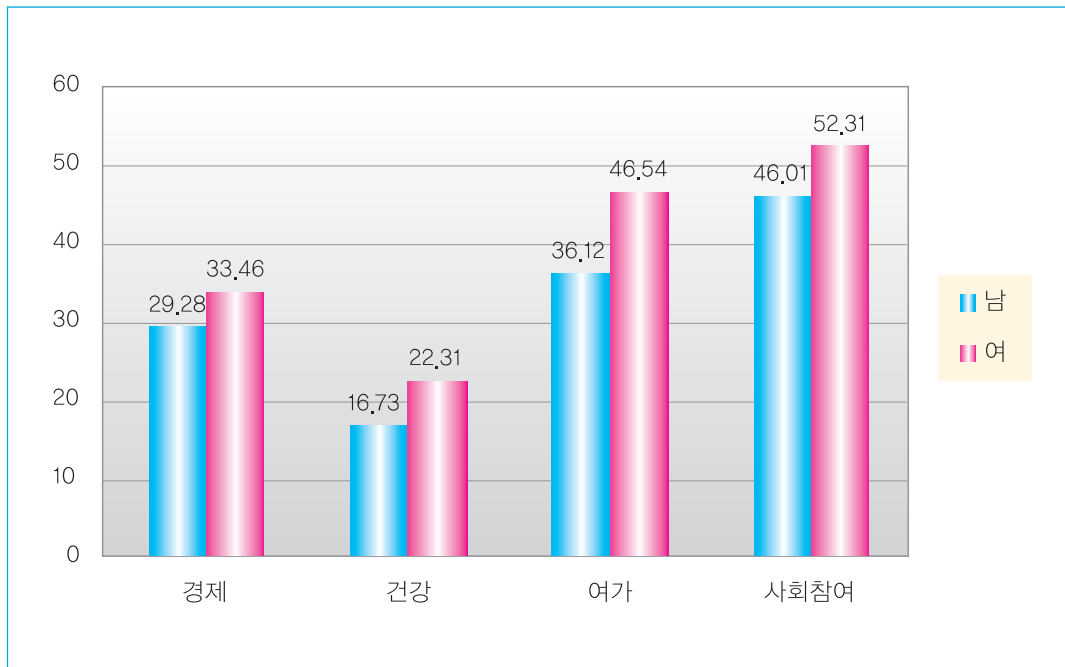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와 주부 가운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남

특히 경제적 준비와 여가에 대한 준비에 있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격차가 큼

[그림 3] 노후설계 영역별 노후준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별 분포

(단위: %)



영역별로 남성에 비해 여성 가운데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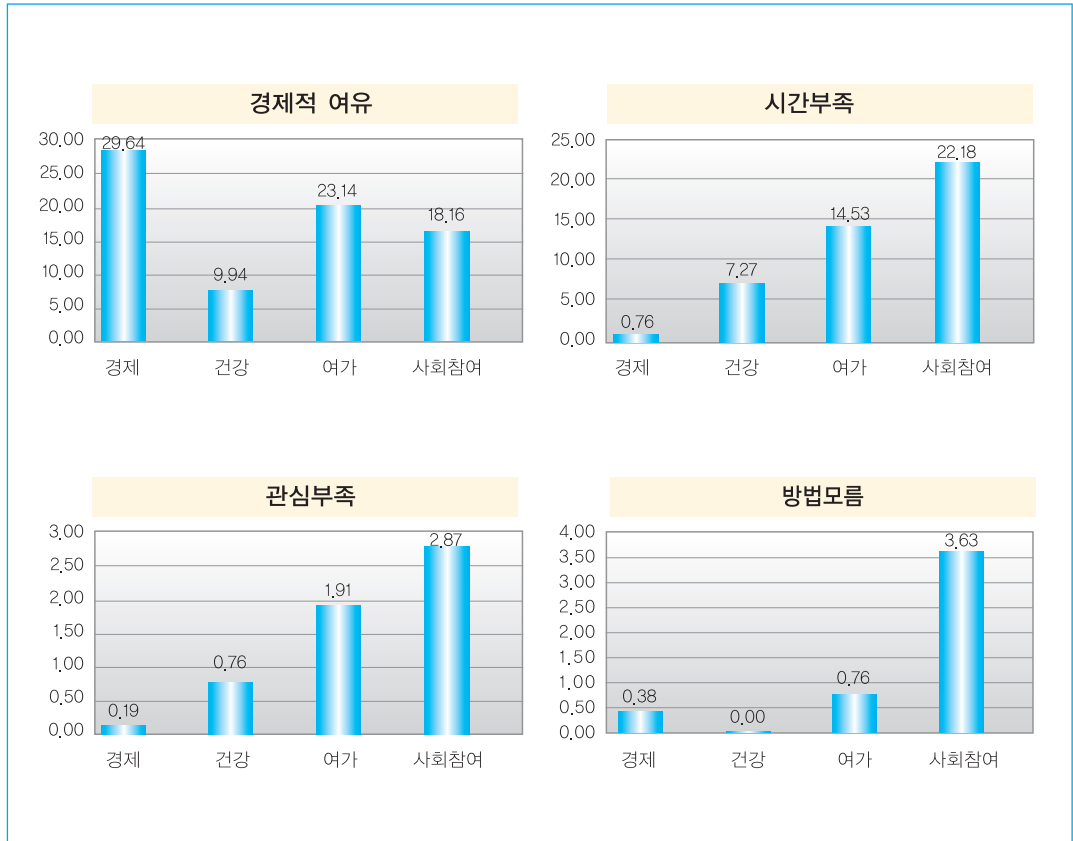
특히 여가 영역의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 주요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노후준비 영역별 노후준비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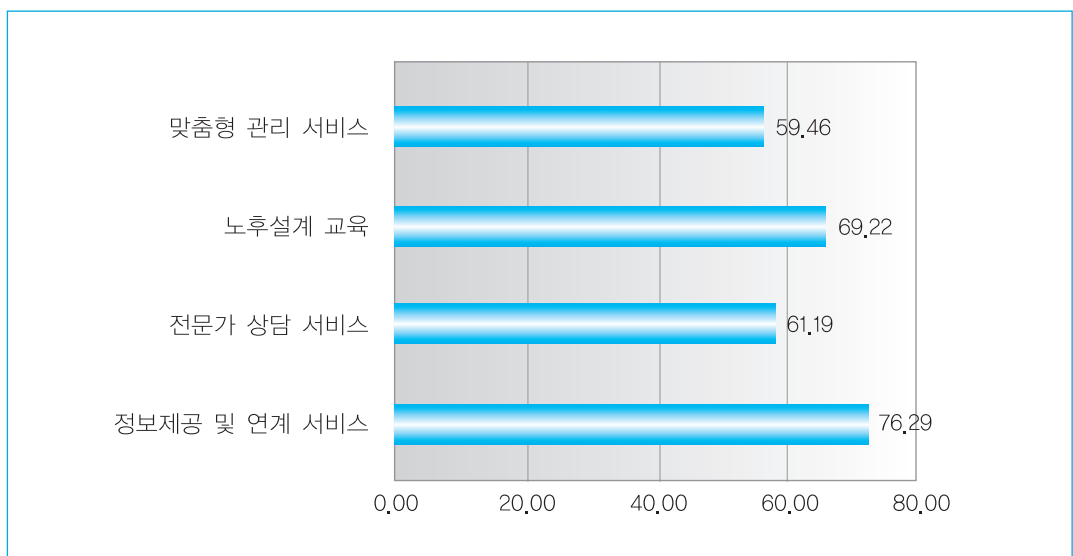
- 경제적 노후준비의 주요 어려움은 경제적 여유와 관련
- 베이비부머가 경험하는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의 어려움은 주로 시간의 부재 및 경제적 여유와 관련되며 특히 타 연령집단(55~64세)에 비해 시간의 부재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여가준비의 어려움 역시 시간의 부재 및 경제적 여유와 관련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관심 부족 비율 높음
- 사회참여 준비의 어려움은 시간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타 영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남. 또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도 타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4] 노후준비의 주요 어려움



□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사회참여의 경우 시간부족, 관심부족, 방법에 대한 지식 부재 등의 원인을 주요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 높게 나타남

[그림 5] 베이비붐 세대가 필요로 하는 노후설계 서비스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노후설계 교육 서비스>전문가 상담 서비스>맞춤형 관리 서비스’의 순서로 나타남
-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 방향

-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포함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외국의 경우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의 공공 및 민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이처럼 외국에서의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음
 - 첫째, 고령자를 위한 사회 정책을 비롯한 제도적 인프라의 수준이 미약함
 - 둘째, 우리 사회는 연령차별적 규범이 강하며 연령통합성이 낮음
 - 셋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찾기 어려우며 생애주기에서 노년기의 단절성이 큼
-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음
 - 노후설계 서비스는 준공공재임. 즉, 노후설계서비스는 충분히 시장기제를 통해 경쟁적 이고 배타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은 노인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가족구성원을 비롯해 보다 넓게는 사회구성원 들 모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구성원들 모두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큼. 즉, 노후설계서비스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자식 세대는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사회전체적으로는 사회통합의 효과, 고령화 시대의 재정절감 효과, 성장동력 확보 등이 예가 될 수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 및 선택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
 - 노후설계서비스의 경우 현재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 수준에 서부터 불일치가 나타나며 뿐만 아니라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일자리) 등 수요자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정보를 포괄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기 매우 용이함.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잘못된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경우 개인의 노후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손해가 매우 큼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 그러나 국가가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민간의 효과적인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3. 노후설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 민간기관의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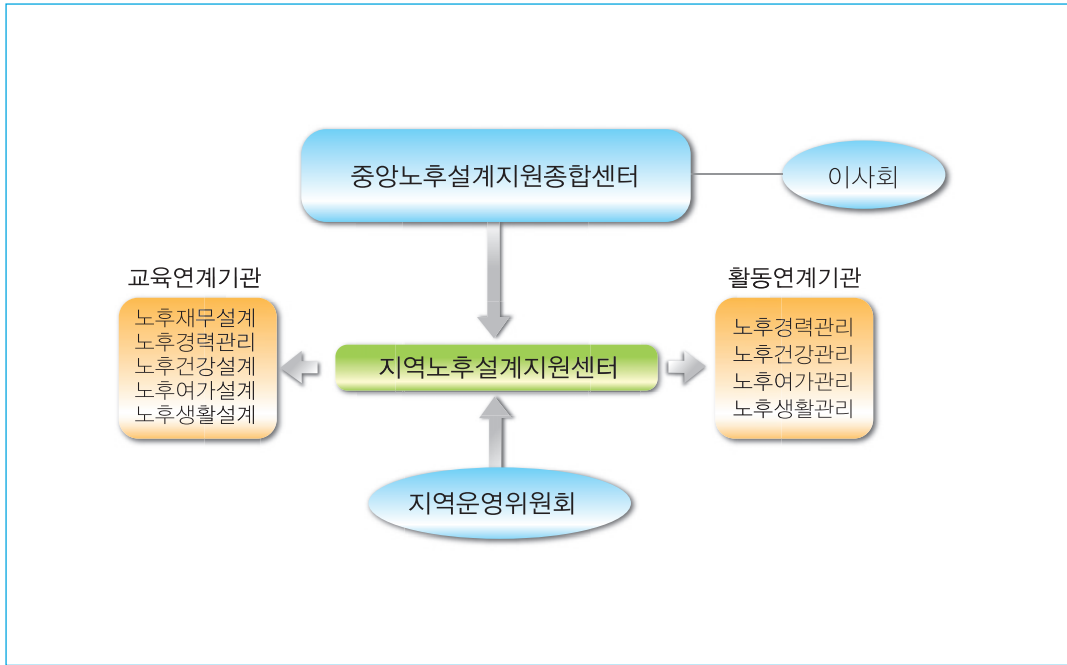
- 이미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으며 또 잠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존재. 이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음

<표 2>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장단점 비교

유관기관	장점	단점
국민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용이(지역 접수창구) · 대상의 적절성(4,50대) · CSA 양성프로그램 보유 · 재무영역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재무영역 서비스 취약 ·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 전문인력의 범위 협소(공단인력 활용) · 사후관리 서비스 한계
노인인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설계 교육컨텐츠 보유(SLCA) · 일자리 연계서비스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인프라 부족(접근성 미흡) ·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미흡 · 사후관리 서비스 한계
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용이 · 지역사회 자원연계의 강점 · 중장년층 대상 사업 경험 ·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편견(저소득층 중심 사업수행 기관) · 지자체별/지역별 인프라의 편차
노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접근성 용이 · 지역사회 자원연계성 강점 · 사후관리(사례관리) 전문성 · 노인복지서비스 노하우 · 노후설계서비스 프로그램 보유 · 기존 전문가(사회복지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층 대상 사업수행 경험 없음 · 중장년층의 인지기적 접근성 낮음 · 지자체별/지역별 편차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보유 · 기존 전문가(건강가정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 미흡(가족지원 중심 사업 수행) · 접근성 미흡

- 이들 기관들이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 수행에 있어 상호 자원을 보다 협력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그림 6]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노후설계 콘텐츠 개발

- 일반인 대상 노후설계 교육 콘텐츠, 전문가 대상 노후설계 교육컨텐츠로 구분하여 표준안 개발 필요
- 노후설계 가이드 프로그램으로서 온라인 정보포털 구축, 노후생활 매뉴얼 발간 필요

□ 노후설계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 마련

-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표준안 개발 및 자격증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서비스 제공 주체인 노후설계 전문가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또한 노후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표준 교육안 등의 개발 필요
- 노후설계서비스 위탁기관 지정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이사회 설치, 노후설계서비스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국민의 노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화 방안 마련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자적 법률 제정 검토 필요
 - 각각의 법률은 독자적 제정목적, 입법목표도 상이.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야 함

이소정(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02-380-812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